

<무위자연론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논평문

이 연 승
(서울대학교)

1. 운명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크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변신론(theodicy)’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왕충은 아마도 천지 및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형성과 존재 양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부조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편안하거나 명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고통’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을 설명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고 전적으로 선한 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왜 부조리한 고통이 존재하는지를 고민하다보면, 이 세 항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변신론의 실패를 떠올린다면, 왕충의 숙명론 역시 존재론의 영역과 가치론의 영역을 모순 없이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임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숙명론이라는 단어로부터 이미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인간 공동체에서의 불합리한 행동과 그 결과가 개선되기 어려워진다고 하는 불편함이 예상되는 것이다.

2. 이 글은 왕충의 세계관을 ‘無爲自然的’인 것이라 규정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행·불행을 일으키는 조건에 놓이거나 그러한 사건들과 만나게 되는 인간(들)의 상황에 대하여 숙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왕충의 사고를 고찰하고 있다. ‘우연’ 혹은 ‘우연성’이라는 관념과 ‘필연성’이라는 관념을 중심에 두고 왕충의 자연관과 인간관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운명론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쓰신 글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다.

3. 양일모 선생님께서 우연과 비우연(≡필연)의 구분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는 어찌면 왕충 자신이 사용하는 ‘偶’라는 용어와 오늘날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우연(성)이라는 관념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보았다. 아래의 이야기들은 논평다운 논평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독자로서 이 글에 보이는 ‘우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에 지나지 않는다.

4. 예를 들면, 4쪽의 중간 부분 “왕충은 인간의 출현도, 자식의 탄생도 모두 우연의 세계로 설명한다.”라는 말과 4쪽의 아래서 3번째 줄 “왕충은 우연의 영역을 만물의 세계로 확장하면서 만물의 생성과 자연의 변화를 중국사상의 기본 범주인 기의 운동성으로 설명한다.”는 문장에서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용어가 규칙성—물론 예외적인 현상들을 포함한—을 보이는 ‘기의 운동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궁금했다. 같은 4쪽의 첫째 줄에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예측가능한 것이야말로 기의 운동성으로 인하여 이어지는 천지의 운행과 만물의 생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천지만물의 생성과 운행에 관한 모든

것을 氣의 운동이나 변화로 이해하는 기일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인위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위자연의 세계란 인간의 행위나 염원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아울러 그 어떠한 인격적 혹은 비인격적인 절대적 실재도 영향력을 함부로 발휘할 수 없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가까우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영역을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 때의 ‘우연’과 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5. 천지만물의 생성이나 그 존재 양상에서는 아무런 의도를 발견할 수 없고, 일종의 법칙성이나 규율 같은 것이 있을 뿐이나, 그 안에서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세계—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운명을 포함하여—를 우연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연과 필연이란 감수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命’은 필연적인 것인가? 혹은 우연적인 것인가? 누가 그것을 판단하는가? 품수된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이고, 이 세상을 관조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

6. 그런데, 본고의 머리말에서 필자는 우연성과 필연성을 각각 偶와 命이라고 하였고, 제6장의 말미에서는 이 세계의 우연성 이면에 놓인 ‘법칙성’을 命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하셨다. 그렇다면 양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무위자연의 자연관 전체를 ‘우연’의 범주에 배당하다음, 그 안에서 인간이 그 불가해한 우연의 연속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법칙성으로 파악한 것이 바로 命이라고 이해해보자는 제안을 하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무목적적’·‘기계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결코 우연의 범주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평자가 선뜻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3-6까지의 내용은 결국, 우연과 필연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사 하는 요청이다.

아래는 평자의 사소한 제안들이다.

7. 이 글에 등장하는 운명론, 숙명론, 명정론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보아도 좋을 듯한데, 혹시 섬세한 차이가 있어서 모두 필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8. 중국 고대의 운명론을 간략하게나마 그 초기적 형태로부터 다루는 2장 ‘운명론의 기원’에서는 天命이든 개인의 운명이든 命을 인정하는 유가와 이에 반대한 묵가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왕충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에는 노장, 특히 <<장자>>에 보이는 命에 대한 이해가 다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한다.

9. 마지막으로 평자의 감상을 조금 적어보겠다. 정해진 운명, 숙명이 있다는 것도 신념이고, 없다는 것도 신념이다. 운명과 관련이 있는 왕충의 글 가운데에는 그가 경험한 사실을 서술하는 대목도 있고, 그의 회구나 절망이 반영된 대목도 있으며, 당시의 통념을 수용한 대목, 나아가 신념의 세계를 서술한 대목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안목을 견지하면서 왕충이 남긴 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면 어떨까?